

제207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재일 대중음악 20년(1945~1965) : 유지, 보전(保傳) 그리고 자극

강사 : 이준희(李浚熙 : 성공회대학 강사)

시간 : 2017. 04. 25. 화. 12:00 - 14:00

2017년 4월 25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07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일 대중음악 20년(1945~1965) : 유지, 보전(保傳) 그리고 자극'이라는 주제로 이준희 선생님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준희 선생님은 한국 고전 대중음악 전공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남인수 전집> 등 음반을 기획·제작했고, KBS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등 방송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옛 가요 사랑 모임 '유정천리' 부회장이며 대중음악 및 대중문화 강의를 이끄는 강사이기도 하다.

재일 대중음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틀이 만들어져, 한일 국교 정상화로 관련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1965년까지 20년 동안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한국 대중음악의 일부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에서 이준희 선생님은 재일 대중음악 20년의 경위를 개괄하는 동시에 그것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유지(민족 정체성과 신민요), 보전(保傳. 과거 음악 자원의 보존과 전달), 자극(새로운 장르와 연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해 보았다.

우선, 이준희 선생님은 재일 대중음악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행위주체자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작사, 작곡 등 생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청중이라는 소비의 영역까지도 포함된다. 공간적 배경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실제로 재일 대중음악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실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활동 배경으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일 한국인인 일본 미야코 하루미(都 はるみ)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지만 한국인의 노래들을 재일 음악 범주에 넣는 등 재일 대중음악에는 민족정체성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일 대중음악의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음반이 제작된 것은 일본보다 1년 늦은 1947년 8월이다. 최초의 재일 음반 회사는 '리베라 레코드'이다. 주소는 도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주가 조련(朝聯)과 관련이 있는 악단이라는 것이다. 조련은 조총련(朝總聯),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의 전신인 재일본조선인연맹(在日本朝鮮人聯盟)의 약자로 추정되며,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되어 1949년 9월 8일에 해산된 단체이다. 한편 '백두 레코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결성된 '백두 동지배'가 모체이다. 리베라 레코드보다 조금 늦은 47년 6월달에 음반을 발매하였다. 백두 레코드는 리베라 레코드와 대비되는데, 일단 고베, 즉 간사이(關西)에 위치하며, 조련과는 달

리 민간 계열과 접속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47년까지는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음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연 활동이다. 해방 직후부터 특히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들의 음악단체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일 대중음악의 중요한 흐름은 50년대 초에 드러난다. K.I. 레코드가 50년대 내내 음반 작업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53~4년부터 LP가 생산되었다. K.I.는 SP를 계속 생산하다가 어쩔 수 없이 LP로 넘어갔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65년까지 10인치 LP를 제작했다. 60년대 중반부터는 12인치로 넘어가고 70~80년대까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5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에 나온 유지·보전(保傳)·자극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신민요와 민족정체성이 중요하다. K.I. 레코드에서는 신민요의 비중이 컸는데, 같은 시기 한국 대중음악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한국 대중음악계는 6.25전쟁 중에 미군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 주둔을 하면서 이른바 '미팔군(美八軍) 지도'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 이후로는 급속도로 미국화된다. 이러한 와중에 전통적인 민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민요라는 양식 장르는 굉장히 개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대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라틴 리듬과 결합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단기간 내의 인기는 얻을 수 있었지만 신민요의 음악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50년대 이후로는 신민요가 거의 내리막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민요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八道江山'이라는 노래가 중요한 것은 가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 모두 이 노래를 부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가사에 이북을 지우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남을 지웠다. 45년도 재일 대중음악에서 남과 북이 어우러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民族의 노래'도 한국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남북을 아울러서 가사에 넣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D에 한반도 지도를 넣은 것은 굉장히 메시지를 넣은 것이고, 정치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재일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음악성도 있고 통일 의지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보전(保傳)에서는 과거 음악 자원의 보존과 전달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준희 선생님은 이것을 '金豊年 銀豊年'과 '草露人生'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이 두 노래는 40년대, 60년대에 발매된 것인데, 같은 노래이다. 단서는 녹음 번호가 같다는 것이다. SP음반은 쇠로 만들어진 동판인데 그것을 기계에 넣고 찍은 것이다. 이것을 찍는 동판이 마스터이다. 즉, 동일한 마스터로 40년대 찍은 것과 60년대에 재판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동판은 당시 일본 고베에 본사를 두고 있는 Taihei 회사에서 40년대에 찍은 것이다. Taihei는 태평으로도 불렸다. 이 동판이 전쟁을 겪었는데도 고베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김기선이 K.I.레코드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Taihei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동판을 직접 인수했던 것 같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동판을 K.I. 레코드가 다수 확보해서 찍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Taihei 레코드를 김기선

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일찍 사라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극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공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일 한국인 음악가들은 모국에 와서 공연을 하였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악단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는 그 흔적이 안 보인다.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한국의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즉, 가공의 이미지가 더 중요했다. 또한 당시 공연을 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공연이 기존에 못 보던 형식의 쇼, 새로운 편곡, 새로운 레퍼토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 잡지 광고를 보면 일본 스타들의 공연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자극이 되었다. 50년대 중후반에는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일본이 더 뛰어났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대중음악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제일 대중음악이 65년 이후로는 많이 달라진다. 제일 대중음악이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 확 줄어들었다. 대신 한국에서 활동했던 하춘화, 남진 등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K.I. 레코드에 실어서 일본에 배포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다. 제일 대중음악은 자체적인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65년 이후에 제일 대중음악의 위상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65년은 해방이 되고도 20년이 지난 제2세대의 시기이다. 일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성년이 되면서 새로운 주체가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적 자원 감소와 관련이 있다. 한정된 인력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벅찬데,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50년대 말 60년대 초 귀국을 한다. 70년대 K.I.레코드를 보면 한일 합작과 같은 형태의 곡들도 많이 보인다. 그것은 그만큼 제일 대중음악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약화되었다는 증거이다. 이준희 선생님은 1965년은 이러한 현상과 함께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문답변>

질문 : 강연에서 인적 자원이 고질적을 부족했던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요 레코드 회사들이 전속 시스템으로 하는데, 제일 음악은 전속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것인가요?

답 : 표기상으로는 전속시스템을 도입하긴 하지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중음악이라는 새로운 신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동력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백두 레코드를 보면 신인가수 선발을 해서 전속가수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50년대만 되어도 제일 한국인들은 사회 생활을 할 때는 (신분을) 감추는 것이 전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음악계를 택하지, 제일 대중음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한국 일본 모두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셨습니다.

답 : 당시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음악적 네트워크는 미군기지의 영향이 중요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미군을 대상을 했던 쇼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가 굉장히 큼니다. 한국에서 8군

쇼가 50년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대중음악을 지탱하는 물적인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 일본도 자국의 동력이 좋아지면 서 한국 같은 경우 60년대 후반이 되면 8군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호전 되면서 일반 무대가 충분히 성장하게 되고 8군쇼는 자연스럽게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 : 신민요, 가요곡, 유행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 그런 것이 30년대 관행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요는 음악적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재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음악적 정체성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 외에는 다 유행가입니다. 유행가라는 말이 일본의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건전하지 않다고 이야기 되기 때문에 가요곡으로 불립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그 표기가 그대로 옵니다. 다만 유행가는 안 쓰게 됩니다. 달라진 것은 50년대 뒤에 사교댄스 열풍이 일어납니다. 음악의 리듬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50년대 중반 이후 음반을 보면 가요곡이라고 쓰고 그 옆에 리듬을 쓰게 됩니다.

질문 : 우선, K.I.가 무엇의 약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 언어에 있어서 조선어로 노래가 가능했는지, 언어문제는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 K.I.의 약어는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릅니다. 다만 K는 KOREA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문제는 영화 같은 경우는 41년~42년은 조선어 대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독과 배우 모두 한국인인데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대중가요는 좀 다릅니다. 의외로 45년 이전에 한국에서 제작된 대중가요 중에 가사 전체가 일본어로 된 곡은 단 한 곡도 없습니다. 정책상 국어상용화를 했는데 대중가요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1절 2절 3절 중 한 절만 일본어로 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해방되기 전 전시체제가 어려워지니까 43년 말 44년 초쯤이 되면 한국어 음반 발매가 중지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반 제작이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생산이 중지됩니다. 어쨌든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질문 : 수용자 측에 대해서 제일 커뮤니티에만 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극히 소수이지만 30년대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대중음악 관련된 음반들은 제일 커뮤니티 내에서만 소비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음반을 주로 한복집에서 판매하였습니다.